



작은 생명도 소중해

- * 글 : 김영주
- * 그림 : 모정희
- * 출판사 : 리틀씨앤북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00쪽
- * 대상 : 초등 1~2학년

■ 책 소개

윤기가 준원이 눈앞에 매미를 들이댔어요. 준원이는 다리 여섯 개를 버둥거리고 있는 매미가 무서워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윤기는 그런 준원이를 보고 겁쟁이라고 놀렸지요. 준원이는 매미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윤기와 매미 잡기 대결을 하게 되었어요. 매미를 잘 잡을 방법을 찾으려고 준원이는 매미에 관련된 책을 열심히 찾아보았지요. 자꾸 보다 보니 매미가 친근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젠 매미가 무서워서 못 잡는 게 아니라 매미가 다칠까 봐 잡을 수 없었어요. 매미가 되기 위해 7년이나 땅속에서 애벌레로 보내고 밖으로 나온 매미의 자유를 뺏을 수는 없었거든요. 자신뿐만 아니라 윤기와 친구들이 매미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때 준원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준원이가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으로 준원이네 반 친구들은 매미를 잡지 않게 되었을까요?

키워드

학교생활, 생명 존중, 매미, 곤충, 자연 보호, 우정

■ 작가 소개 <김영주>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어요. 교사로 근무하며 아이들과 행복했던 순간이 많았고, 그래서 어린이들과 늘 함께할 수 있는 책으로 만나려고 작가의 길을 선택했어요. 책에 담은 마음이 어린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JY아카데미에서 어린이 논픽션과 동화를 쓰고 있어요. 지은 책으로 『우리 역사에 숨어 있는 인권 존중의 씨앗』(공저)과 역사 동화 『교서관 책동무 - 비밀글자를 지킨 아이들』, 생활 동화 『먹기 싫은 건 안 먹을래』가 있습니다.

■ 주요 독후활동

작은 생명도 소중해	독서 전 활동	제목, 표지 살피기
	독서 중 활동	내용 알아보기
	독서 후 활동	① 무섭지 않아! ② 매미 잡기 대결 ③ 유령 숨바꼭질



독서 전 제목, 표지 살피기

※ 다음 책의 표지를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표지에 있는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인지 말해 봅시다.

⇒

2. 제목을 봤을 때 어떤 이야기일 것 같나요?

⇒

3. 표지의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 다음 책의 뒤표지를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 우리 주변에는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준원이는 맴맴 우는 매미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윤기와 매기 잡기 대결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매미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매미 책을 열심히 보았어요.
매미에 대해 잘 알게 되니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 윤기와의 매미 잡기 대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 봐요.

1. 밑줄 친 ㉠의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생명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학교 가는 길, 집 근처의 산이나 공원 등을 잘 살펴보세요.

.....
.....
.....
.....

2. 나라면 어떻게 할지 ㉡의 질문에 답해 봅시다.

.....
.....
.....
.....



독서 중 내용 알아보기

※ 다음 제목과 알맞은 그림을 연결하세요.

1. 무섭지 않아!



2. 매미 잡기 대결



3. 유령 숨바꼭질



※ 인상 깊었던 내용과 이야기 속에 나오는 친구들 중 기억에 남는 친구는 누구인지와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인상 깊었던 내용	
기억에 남는 이야기 속 친구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무섭지 않아!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니, 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윤기가 나한테 갑자기 매미를 들이치는 거야.”

“매미를?”

“응! 방금 잡았다면서 내게 내미는데 너무…….”

말하다 말고 준원은 두 손으로 팔뚝을 막 문질렀어요. 닭살이 오소소 돋았거든요.

“다리 여섯 개를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더듬이까지 막 앞뒤로 흔들더라고!”

준원은 윤기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잡혀 버둥거리던 매미가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태연이도 당연히 징그러워할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윤기 대단하다. 어떻게 맨손으로 매미를 잘 잡지?”

“그게 뭐가 대단해! 게다가 난 어제 윤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넘어졌다고? 왜?”

“갑자기 눈앞에 매미를 들이대니까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었던 말이야.”

“에이, 너 혹시 매미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1. 윗글에서 밑줄 친 문장의 말줄임표는 어떤 말을 줄였을지 생각해 봅시다.

⇒

2. 준원이처럼 매미를 무서워하나요? 나는 어떤 것이 왜 무서운지 이야기해 봅시다.

⇒

3. 윤기가 준원에게 매미를 들이친 것처럼 친구가 나에게 매미를 내민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느낌이 들지 말해 봅시다.

.....

.....

.....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매미 잡기 대결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응. 맞아. 나도 무서웠어. 매미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매미를 다치게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아, 대결하기 싫다. 학교도 가기 싫다.”
 준원이는 무릎에 고개를 파묻었어요.
 “어쩌지? 윤기는 끝까지 대결하자고 할 것 같던데.”
 “나 진짜 매미 잡기 싫어. 이런 자세로 7년이나 땅속에 있다가 겨우 나왔는데 채집통에서 살고 싶진 않을 거야!”
 준원이는 책에서 본 매미가 되기 전의 굼벵이 사진을 떠올려 몸을 더 웅크리며 태연이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태연이는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되었어요.
 “세상에! 매미가 7년이나 땅속에 있다 나오는 거래?”
 “응. 그거 알고 나니까 나 진짜 안 잡고 싶어졌어. 윤기한테 솔직히 말해 볼까? 매미 불쌍하니까 잡지 말자고?”
 “근데 말해 봤자 못 알아들을 거야. 나도 오빠한테 잠자리 잡지 말라고 날아다니고 싶을 거라고 말했더니 잠자리가 마음이 어디 있냐며 비웃음만 당했거든.”

1. 윗글에서 준원이는 왜 무섭다고 했나요?

⇒

2. 준원이가 매미를 잡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준원이와 태연이는 매미와 잠자리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의 생각	
그 이유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유령 숨바꼭질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매미가 굴뚝이로 7년이나 땅속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와 겨우 2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난 고작 창피함을 이기려고 그 행복을 빼앗았어. 매미보다 크고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엄청나게 큰 외계인이 지구를 정복해서 재미로 나를 잡아 가둔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 매미를 잡은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

(나) “아니야.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 나도 얼마 전에 동생이 개미굴에 물을 붓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니 재미있는 걸 왜 못 하게 하냐고 대들더라. 이걸 겪어 봐야만 알 수 있거든. 사실 나도 예전이었으면 그냥 똥을 텐데 수영을 배우면서 물에 한번 빠져 보니까 물에 빠진 개미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 개미도 나처럼 살아 있는 거잖아.”

지영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희준이도 생각난 듯 이어 말했어요.

“나도! 나도 개미 안 죽여. 개미가 나오는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알게 되니까 이젠 못 잡겠어.”

“난 풀을 함부로 못 뽑겠어. 인터넷 영상에서 겨울에 단단하게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싹을 보고 나니까 도저히 막 뽑거나 함부로 밟게 되지 않더라.”

친구들은 저마다 경험한 작은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1. (가)의 글에서 준원이는 매미를 잡은 자신의 행동이 왜 나쁘다고 생각했나요?

⇒

2. (나)의 글에서 지영이와 희준이가 개미를 잡지 않게 된 이유를 찾아 써 봅시다.

⇒ 지영 :

희준 :

3. (가)와 (나)의 글에서처럼 나도 매미, 개미, 풀 등 작은 생명을 아끼고 보호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경험을 말해 봅시다.

.....

.....

.....



독서 후 토론&논술_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은 친구 관계를 생각하면 쉬워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어떻게 함께 즐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죠. 물론 한쪽만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겠죠?

누가 매미를 더 빨리 많이 잡아 채집통에 모으는지 내기를 하며 놀아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그것 보다는 나무에 앉아 있는 매미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예상해 보고 올 때를 기다리는 놀이가 매미와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즐거운 놀이가 될 거예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서로 아끼고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오래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 윗글에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은 친구 관계를 생각하면 쉽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된다고요. 글에서 말한 방법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

1.

2.

3.

4.



독서 후 창의융합_ 유령 숨바꼭질 게임

※ 준원이네 반에서 했던 게임 기억나요? 우리도 다음 글의 규칙대로 유령 숨바꼭질을 해 봅시다. 그리고 직접 체험한 소감을 말해 봅시다.

1. 모두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꼼짝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숨긴다.
2. 유령 청소부가 청소 빗자루(붓)를 들고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움직이거나 몸이 빠져나온 유령들을 꼬집어낸다.
3. 2분에 한 번씩 '성장'이라고 말하면 조심스럽게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돈다.
4.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반복한다.



⇒ 유령 숨바꼭질 재미있었나요? 느낀 점을 말해 봅시다. 매미는 7년 동안 땅속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온대요. 좁고 어두운 곳에서 살다가 나오면 어떤 기분일지도 생각해 봅시다.